전남광주 10월 물가 2.8% 상승…공업·서비스업 주도

전년 比 광주 2.6%·전남 2.9% 올라

경유 19.9%·휘발유 11.9% 큰 폭 ↑

사과·상춧값 하락 농축수산물 1.6% ↓

지난달 전남광주 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른 반면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 가격은 하락하며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3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전남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인 2.7%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권역별로는 광주가 2.6%, 전남이 2.9%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 광주권역은 2.5%, 전남권역은 2.8% 상승했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5.9% 하락했다. 광주권역이 5.6%, 전남권역이 6.2% 각각 내리면서 신선식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품목 성질별로는 상품 물가가 3.1% 상승했다. 이 가운데 공업제품이 4.6% 오르며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경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9.9% 상승했고 휘발유와 휴대전화기도 각각 11.9%, 10.8% 올랐다. 반면 차와 수입 승용차는 각각 16.2%, 3.9%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1.6% 내렸다. 국산 쇠고기와 고등어 가격이 각각 11.3%, 18.7% 상승했지만 사과(-20.2%), 상추(-36.7%), 귤(-6.0%)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광주에서 고등어(24.2%)와 갈치(35.8%)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전남에서는 국산 쇠고기(18.2%)와 고등어(15.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 상수도료가 3.7% 올랐으나 지역난방비는 2.3% 내렸다. 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다. 국제항공료가 20.7% 올랐고 보험서비스료와 자동차수리비도 각각 13.4%, 6.9% 상승했다. 외래진료비는 2.0% 올랐다.

반면 유치원 납입금(-97.0%), 보육시설 이용료(-56.6%), 학교 보충교육비(-13.4%), 승용차 임차료(-8.4%) 등은 하락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광주는 택시료(12.4%)가, 전남은 국제항공료(20.7%)가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안태호 기자



코스피 3% 하락 마감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0.29포인트(3.59%) 내린 5,648.790에, 코스닥은 29.97포인트(4.08%) 내린 704.39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100년 역사 깃든 양동시장서 홍탁 즐기세요"

광주경일재단, 12-14일 '홍탁페스타'

미식쇼·공연·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마련

광주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이 홍어와 막걸리를 주제로 한 축제를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3일 "양동시장상인회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동시장 일원에서 '양동 백투더 장(BACK TO THE 장) 홍탁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양동시장은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일상의 문화가 스며있는 양동'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2년간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제는 '양동 古GO! 3GO'를 슬로건으로 전통을 잇고, 맛을 즐기며, 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로 꾸며진다. 양동시장의 역사와 고유 먹거리, 문화예술을 결합해 전통시장을 단순한 거래 공간에서 세대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취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안유성 명장이 참여하는 홍어와 오케스트라의 미식쇼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공연이 마련된다. 홍어와 막걸리를 모티브로 제작한 캐릭터 '홍이·탁이'도 선보여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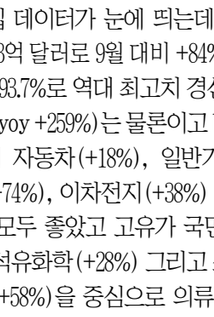
특히 전국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과 구매 이벤트, 시식권 증정 등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시장 내 소비를 유도하고 상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신현구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축제가 양동시장의 전통에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목 양동시장상인회장도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전통과 먹거리, 세대 간 소통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양동시장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국내 증시 하락 클라이맥스 통과…연말 산타 랠리 기대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10월 28일-11월 3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4%로 희비가 갈렸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급 양상을 보였는데 개인의 1.8조원 순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갔으며, 코스닥은 개인이 외국인 물량 6,000억원을 순 매수했다. 실적 뒷받침이 안 되는 코스닥은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양새다. 그나마 지수를 받쳐주던 반도체 장비주들도 최근 한 달 새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며 하락을 가중시키고 있고 제약 바이오는 고금리 환경 속에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 참 고통스러운 구간이다.

그래도 대형주 쪽은 지속 선방하고 있다. 이번 주가 11월 첫째 주다 보니 주요 지표 중 한국 10월 수출입 데이터가 눈에 띄는데, 10월 한국 수출은 1,153억 달러로 9월 대비 +84%에 전년 대비해서는 +93.7%로 역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 반도체(yoy +259%)는 물론이고 비반도체도 약진했는데 자동차(+18%), 일반기계(+24%), 전자기기(+74%), 이차전지(+38%)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모두 좋았고 고유가 국면에서 정유(+80%)와 석유화학(+28%) 그리고 소비재까지도 화장품(+58%)을 중심으로 의류(+33%), 농수산(+12%)이 미국(블랙프라이데이), 중국(광군제), EU 시장에서 고른 확장을 이어갔다.

워낙 반도체가 숫자상 압도적이긴 하지만 다른 국내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내며 전체 숫자를 끌어올리고 있어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하방을 경직시키고 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주 초반 미-이란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고 외국인 순매도와 반도체 대형주 약세가 겹치며 하락 출발했다. 이후 앤트로픽의 IPO 신청 소식이 AI 투자 수익성 우려를 일부 완화하면서 미국 기술주와 국내 반도체 투자심리가 회복됐고 주 중반에는 SK하이닉스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과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스피가 하루에 6%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이러한 강한 회복 탄력성까지 보여준 국내 증시는 일단 하락의 클라이맥스는 통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국채 금리도 점차 내려와서 5% 아래 위치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도 10월 중순부터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유가가 지속 고가에서 움직이며 WTI 기준 100달러 수준에 있는 점이 증시에 부담이긴 하지만, 이번 주 미국 중간선거가 지나면 약하게나마 주식시장의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해 봄직하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10월 31일 기준 예측기관들의 평균 정당 지지율이 민주 52% 공화 43.5%로 지지율 차이가 꽤 벌어져있어,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90%, 하원을 확보할 확률은 70%로 예측된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임기 2년을 남기고 레임덕에 처해 주요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에 증시도 힘이 없는데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증권가에 단골로 도는 표가 있다. 1942년 이후 S&P500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중간선거 전에는 미장이 크게 흔들리고 중간선거가 끝나면 반등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 표로 정리돼 도는 것이다. 실제 통계로 수치화해보면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10월 말 종가에서 다음 해 6월 말을 비교하면 21번의 중간선거 모두 플러스였고, 평균은 +16.6%가 나온다. 무려 21번의 과거 역사상 승률이 100%이고 평균적으로 16.6% 올랐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간선거가 없던 해의 같은 기간(10월 말-6월 말)을 보면, 63번 중 43번이 상승했고 20번이 하락했다. 평균 상승률도 5.1%로 중간선거가 있던 기간의 16.6%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는 시장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다. 중간선거가 막상 끝나고 나니 대통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던,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던 결과와 상관없이 안도감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하나!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둘!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셋!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곤란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DSLR/미러리스 반납(판매) 후 R SYSTEM 구매 시 최대 32% 할인
Change to
R SYSTEM 프로모션
SEASON 3
캐논 DSLR 또는 EOS M 시리즈 및 EF 렌즈 유저는 물론, 타 브랜드 정품 DSLR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대상 확대!
사용하던 카메라 반납하고
EOS R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기간
26년 10월 15일(목) ~ 11월 30일(월)
반납(판매) 제품
· 캐논 바디 : 2012년 이후 출시 된 DSLR, EOS M 시리즈
· 캐논 렌즈 : 일부 EF렌즈
· 타 브랜드 : 일부 DSLR, 미러리스 카메라
* 타 브랜드의 자세한 매입 가능 기종은 매장으로 문의바랍니다.
캐논스토어 본점 | 062) 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지점 | 062) 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광주광역시 지정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관 포
관 포 개 발
사람을 위하여 건물을 위하여
(주)한양주택관리
당사는 대표자의 오랜 주택관리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빌딩·오피스텔·주상복합·원룸등 모든 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수납·연체자관리·청소·경비·승강기·소방·물탱크 청소·소독 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 표 이 범 석 (주택관리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 062.262.1945
사업내용
건물관리업
빌딩·공동주택·오피스텔·원룸
청소용역업
경비용역업
승강기관리업
방역소독·물탱크청소업